

# 개교 110년 수피아여고 문학반 이야기 연기·영상 접목 낭독극으로 다시 쓴다

‘자목련 필 무렵’ 연습장 가보니  
영상·음향 효과 실감 더해  
항일, 5·18 앞장선 소녀들  
“광주 여성사 조명 계기 되길”

광주정보문화진흥원 공모 당선  
8일 문화전당 어린이극장 공연

“광주 최초의 여학교인 수피아여학교를 배경으로 문학반 소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지난 2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씨디아트홀’에서는 입체낭독극 ‘자목련 필 무렵’의 연습이 한창이었다. 이 날은 대본 연습과 더불어 입체낭독극에 쓰일 영상을 촬영하는 날이었다. 입체낭독극은 일반 낭독극과는 다르게 낭독자의 연기, 영상 등을 가미한 낭독극이다.

이날 연습현장에서 만난 ‘자목련 필 무렵’의 작가 문진영씨는 “이번 공연은 광주 학생독립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광주의 이야기를 입체낭독극의 형태로 진행하는 공연이다”며 “이를 통해 어린이, 청소년층으로 하여금 광주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피아 여고 출신인 문 작가는 “올해는 모교가 개교 1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며 “특별한 해에 모교에 대한 이야기를 선보일 수 있어서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이 작품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정현) 2017 지역 특화 스토리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스토리 기획개발 공모’에 당선돼 최우수작품상 및 제작지원작으로 선정됐다.



지난 2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씨디아트홀’에서 입체낭독극 ‘자목련 필 무렵’의 연습이 한창이다.



문진영 작가

로 선정됐다. 또 201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극장 기획 대관 공연으로도 선정돼 오는 8일 오후 3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공연의 연출은 연극배우 노희설씨가 맡았으며 정경아, 배시현, 도민주, 박혜빈 등이 출연한다. 입주신 음악감독과 영상제작소 픽픽컴퍼니, 극단 좋은친구들 등도 참여한다.

문 작가는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수도가 아닌 지방의 이야기이며, 남자가 아닌 여자들의 이야기이자, 어른이 아닌 소녀들의 이야기다”며 “모두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가장 먼 곳에서 출발하는 이야기로 그렇기에

어쩌면 광주와 가장 닮았다. 펍백받고 상처받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말했다.

작품은 수피아여고의 문학반 소녀들이 폐쇄위기에 처한 문학반을 살리기 위해 활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 1980년 5월 그리고 현대 세대의 여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광주의 시대정신과 소녀들이 어떻게 조응하고 성장하는지를 선보인다.

문 작가는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지역의 여학생들은 다른 지역의 여학생과는 다르게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모임을 통해 독립운동을 했다”며 “유관순, 남자현 등 이름난 여성독립운동가가 자신의 이름을 떨치며 활약한 것과 달리 이 지역의 여학생들은 개인의 이름이 아닌 ‘소녀회’, ‘백청단’, ‘백자동맹’과 같은 조직의 이름으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여학생들의 이러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정신은 1980년 광주의 시대정신과도 긴밀히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

금까지 이러한 광주 여성사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는 그만큼 우리가 광주 여성사에 무관심했다는 방증이죠. 광주 여학생들의 독립운동기가 새롭게 관심을 받고 연구자들에 의해 화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자목련’은 100여 년 전통의 수피아 여학교(고등학교)의 교목이자, 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교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봄꽃으로 현존하는 교내 문화동아리의 실제 이름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엄숙한 시대, 아픔과 상처를 딛고 성장하는 소녀들의 모습을 작목련에 비유, 시대적 자각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새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한 소녀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문 작가는 “이 이야기가 광주의 수많은 언니, 이모, 엄마, 아나, 할머니, 옆집 아주마, 친구들로 연결된 우리 모두의 학교를 기념하는 뜻깊은 기념작이자, 광주의 정신을 간직한 콘텐츠로 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전문기자 ej6621@

## “살아있는 것은 모두 아름답다”

김한호 수필집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출간

광양 출신 김한호 수필가가 일곱 번째 작품집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해야지(범우사·사진)’를 펴냈다.

책은 지난 2015년 2월 고교 교장으로 정년 퇴직한 이후에 발표한 에세이와 칼럼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저자는 전남교육청 장학사, 중·고교 교장과 교장 등을 역임하며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 문단활동을 병행해왔다.

모두 50여 편의 글이 담긴 이번 에세이집은 자연 사랑, 인간애 등과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돼 있다.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돼 있다.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어두운 세월의 기억’, ‘급변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한편 저자는 1994년 ‘한국수필’에 수필로, 2001년 ‘문학춘추’에 평론으로 등단했으며 광주문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대한민국공무원문학상, 전남문학상, 수필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살아있는 것들은 아름답다.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아름답다. 우리 인간도 모든 동식물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 아름답다. 그래서 행복한 삶이란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저자는 하나뿐인 지구를 마치 인간만의 것이 양 지배하고 있는 오늘의 세태에 대해 일침을 가한다. 그러면서 물질문명에 길든 인간이 자연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으며 이로 인해 함부로 파괴하고 살생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한편 저자는 1994년 ‘한국수필’에 수필로, 2001년 ‘문학춘추’에 평론으로 등단했으며 광주문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대한민국공무원문학상, 전남문학상, 수필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인간 이순신... ‘난중일기’ 완역본 출간

충무공 이순신(1545~1598) 420주기를 맞아 리더십과 인간적인 면모를 담은 책 ‘난중일기’ 완역본(글항아리·사진)이 나왔다.

역자는 ‘흔들리는 마흔, 이순신을 만나다’를 집필했던 박종평 씨로, 그는 다년간 ‘난중일기’의 원문 및 다양한 판본, 번역본들을 비교해 새롭게 번역했다.

저자는 여러 번역본과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사료들을 토대로 이순신의 의도와 가장 근접한 해석을 찾으려 노력했다. 각 판본에서 중복되는 날짜나 추가, 삭제된 내용을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16세기의 모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역사적 사료들을 활용해 각



주를 달았다. 현대에는 쓰이지 않거나 같은 단어도 맥락 속에서 달리 활용되는 경우를 모두 찾아 기록했다.

책은 모두 5부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장은 ‘이순신의 일기’(난중일기)와 ‘이순신의 보고서’(장계), ‘이순신의 편지’(서한첩), ‘이순신의 조카 이분이 쓴 이순신 전기’(이충무공행록) ‘참고 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이 발행하는 문화 담론 계간지 ‘창’ 41호(사진)가 나왔다.

표지그림으로 고(故) 이강하 작가의 ‘무등산의 봄’(2007)을 실었으며, 이번호 특집 기획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민선 7기 시대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을 쟁점 및 과제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다.

내용은 ‘문화정책의 새로운 전환, 협치에서 시작하자’(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 6·13 선거 앞두고 지역 문화정책 방향은?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계간지 ‘창’서 다뤄

책임연구원), ‘기초예술의 좌표는 어디로’(전고필 대인예술시장 총감독),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어떻게 보십니까?’(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지역의 문화쟁점을 다뤘다.

‘문화인 탐구생활’에서는 오는 6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한국학호남진흥원 이종범

원장을 만났으며 새롭게 기획연재를 시작한 ‘호남의 현판 주연 이야기’에서는 임준성 광주여대 교수가 ‘꿰어보고 우려보는 면양장’을 다뤘다.

‘문화진단’ 코너를 통해 ‘전라도 정도 1000년과 그 의의’에 대해 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가 진단하고, 김정희 시인이 ‘우



리가 찾아 나선 사람·풍경·인권’을 주제로 대만의 민주화운동 등 역사문화 탐방기를 썼다.

‘창’은 재단 홈페이지(www.rcef.or.kr)에서 원문을 볼 수 있으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 시 창작·일본 원서 읽기...광주시민인문학 4월 강좌

실천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이 오는 27일까지 4주에 걸쳐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52기 강좌를 연다.

월요일에는 인문학입문 시간으로 명혜영 교수가 ‘페미니즘이 쏘모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김청우 박사와 명혜영 교수가 각각 ‘시 창작, 이론에서 실기까지’, ‘몸으로서의 정신-베르그송 ‘물질과 기억’을 강연한다. 목요일에는 신우진 씨가 ‘묵묵히 책을 읽자-심인심책’을 이야기한다.

금요일에는 명혜영 교수가 ‘일본 원서로 읽는 소설, 철학용어도감’을 강의한다. 한편 토요일(오후 2시) 무비토

에서는 ‘인간 심연의 랩소디 걸작선’이 이어진다.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010-9949-8557.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